

재번역을 재고하다: 결여 패러다임에서 다양성 패러다임으로

유 한 내
(연세대)

1. 들어가며

재번역은 전에 번역된 텍스트가 같은 언어로 다시 번역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ST(Source Text) 하나당 번역자가 다른 TT(Target Text)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를 재번역으로 정의하기도 한다(Paloposki and Koskinen 2010: 36). 재번역은 최초의 번역보다 시간상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작이나 기존 번역본을 참고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변형시킬 수도 있다. 또한 기존 번역에 대한 평가와 독자들의 반응을 참고해서 번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재번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양한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문학의 발전 단계에 따라
- 원천문화와 목표문화의 관계에 따라
- 역사적 · 이데올로기적 맥락에 따라

- 출판사의 요구에 따라
- 예상 독자의 기대에 따라
- 그림 등 편집 요소의 변화에 따라
- 번역사의 프로필, 선호도, 해석 등에 따라

모든 텍스트는 재번역될 수 있으나 통상 재번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르는 고전 문학작품이다(Brownlie 2006: 146). 고전이 지속적으로 재번역되는 것은 원작 자체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작의 저작권이 작가의 사후 50년까지만 보장되므로, 오래된 문학작품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이미 문학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상업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임순정 2010: 127). 원작은 재번역을 통해 새로운 맥락에서 반복되는데, 이러한 반복을 통해 원작의 지위가 이전보다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이미 고전이나 정전(正典)의 반열에 오른 텍스트의 경우 재번역은 정전 텍스트(canonical text)의 해석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비정전 텍스트(non-canonical text)가 재번역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정전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재번역 현상은 번역 간의 권력관계나 원작을 둘러싼 사회적 권력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그간 재번역에 대한 연구는 재번역 현상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번역규범·번역전략·독자반응 등 번역의 다른 측면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Paloposki and Koskinen 2010: 30).

현재 재번역과 관련해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인 연구가 없다. 재번역 자체는 흔히 일어나고 있으나, 재번역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거의 없다. 재번역은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번역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Susam-Sarajeva 2006: 135, 본인의 번역)

재번역을 이용한 기존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TT1(기존 번역)에 비해 TT2(재번역)가 어떻게 오역을 교정하고, 생략된 부분을 추가하고, 현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고, 모호한 부분을 명확화하고, 원작의 문체를 살렸는지 등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 대부분이다(Massardier-Kenney 2015: 73). 재번역은 기존번역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번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

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번역학 내에서 재번역 자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지 않은데, 그나마 이루어지는 이론적 논의도 재번역 가설(Retranslation Hypothesis)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학계뿐만 아니라 출판계에서도 새로운 번역본의 마케팅을 위해 재번역 가설을 옹호하고 있다(Massardier-Kenney 2015: 73). 시대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새롭고 더 나은 번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조사 결과 작품이 처음 번역되거나 기존 번역본을 재인쇄하는 경우보다 재번역을 하는 경우가 대중으로부터 훨씬 관심을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Paloposki and Koskinen 2010: 35). 출판사에서는 새로운 번역본을 홍보하기 위해 충실성, 가독성, 현대적 언어 등의 면에서 이전 번역본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언론이나 서평에서 새로운 번역본에 대해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기존 번역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번역이 더 낫다’는 것이다(30).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나은 번역이 필요하다는 생각, 이전 번역보다 새로운 번역이 더 낫다는 주장은 기존 번역에 무언가 결함이 있거나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재번역이 이루어진다는 결여 패러다임(Paradigm of Lack)에 바탕을 두고 있다(Massardier-Kenney 2015: 73).

본고에서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재번역을 둘러싼 결여 패러다임과 재번역 가설은 무엇이며, 결여-향상 패러다임의 한계는 무엇인가? 둘째, 결여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규범적·이데올로기적 접근법은 무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해석학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 패러다임(Paradigm of Mutiplicity)이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본고는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결여 패러다임에서 다양성 패러다임으로 재번역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결여 패러다임

2.1 재번역 가설과 결여 패러다임

그간 재번역은 주로 오역 교정, 삭제된 문단 복원, 구식 언어의 현대화, 텍

스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공, 모호한 부분의 명확화, 어색한 문체 수정 등 기존 번역에서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재번역이 이전 번역의 취약성(weakness), 결함(deficiency), 불충분성(inadequacy)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결여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고 있다(Massardier-Kenney 2015: 73). 기존 번역에는 결여된 부분이 있으며, 재번역을 통해 번역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형적인 결여-향상(lack-improvement)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재번역 가설이다.

재번역 가설이란 최초의 번역이 자국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T에 가까운 번역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며, 최초의 번역은 결코 훌륭한 번역일 수 없다는 가설이다(Chesterman 2000: 22). 이러한 가설의 출발점이 된 것은 베르만(Berman 1990: 5)의 재번역에 대한 에세이다.

처음에는 (대개 작품을 연구하는 이들을 위해) 문학적인 요소를 배제한 대답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문학적인 야심을 가지고 최초의 번역이 등장한다. 이러한 번역은 일반적으로 완벽하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고 오류로 가득하다. 그 후에야 (다수의) 재번역이 등장한다.그러고 나서 마침내 오랜 기간 반복된 재번역에 종지부를 찍을 정전에 가까운 번역이 등장한다. (Berman 1995: 57, 본인의 번역)

베르만은 수용문화 또는 번역자에게 매우 낯선 텍스트의 경우 최초 번역은 자국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초의 번역은 문화적인 요인이나 편집자의 요구 등으로 인해 원작의 낯센(otherness)이 줄어들고 도착문화에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최초의 번역본을 통해 원작이 목표문화에 소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문화와 독자층이 텍스트가 내재하고 있는 언어적·문화적 낯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므로, 텍스트의 낯센을 살려서 좀 더 ST에 가깝게 재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르만에게 있어 최초의 번역은 결함이 있는 번역(deficient translations)이며, 재번역이 될 때에야 비로소 훌륭한 번역(great translations)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재번역을 통해 ST에 가깝게 낯선 요소를 살려 번역할 때 바로 베르만이 선호하는 정전에 가까운 번역(canonical translation)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벤시몽(Bensimon 1990: ix) 역시 최초의 번역은 “다른 문화에 통합되기 위

해 작품의 타자성(alterity)을 약화(reduce)”시키고, “수용자를 우선시하는 사회문화적 강령에 낮은 작품(foreign work)을 복종(submit)”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베르만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마사르디에-케니(Massardier-Kenney 2015: 74)는 벤시몽이 언급한 약화(reduce)와 복종(submit) 등의 부정적인 단어가 결여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타자성이 약화되고 수용자 우선 강령에 복종한 최초 번역의 결여로 인해 재번역이 필요하다고 벤시몽은 주장하는 것이다.

로드리게즈(Rodriguez 1990: 68)는 재번역이 이전 시기의 ‘버전’을 참고함으로써 원작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했다. 최초의 번역본은 참고할 자료가 전혀 없는 데 반해, 재번역의 경우 이전에 이루어진 번역본을 참고해서 원작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원작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최초의 번역이 목표문화에 이미 원작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재번역은 좀 더 원작의 문자(letter)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도 역시 최초의 번역은 원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재번역을 통해 번역이 향상되어 원작의 메시지에 더 가까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결여 패러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재번역이 문학번역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판데르셀덴(Vanderschelden 2000: 1)은 재번역이 최초의 번역에 비해 어떻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마사르디에-케니(Massardier-Kenney 2015: 74)는 판데르셀덴이 합리화(justification)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재번역은 합당한 이유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합당한 이유는 곧 기존 번역의 결여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재번역은 기존 번역에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재번역 가설과 결여 패러다임에 의하면 재번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 번역에 결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2 결여-향상 패러다임의 한계

이처럼 결여 패러다임과 재번역 가설은 재번역이 이전 번역에 비해 더 복잡하고, 향상되었으며, 명료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재번역 가설이 과연 언제나 유효할까? 연구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드시 번역이 더 정확해

지거나 ST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다.

팔로포스키와 코스키넨(2004)은 『웨이크필드의 목사』(*Vicar of Wakefield*), 『천일야화』(*Thousand and One Nights*), 『마태복음』(*Gospel according to Matthew*) 등의 문학작품이 핀란드어로 재번역된 사례를 들며, 재번역이 최초의 번역보다 결코 ST에 가까워지거나 정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라운리(Brownlie 2006)는 에밀 졸라(Émile Zola)의 소설 『나나』(*Nana*)가 영국에서 재번역된 사례를 들었다. 이 연구는 5편의 번역본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번역이 향상되거나 목표문화 중심에서 원천문화 중심으로 번역이 변화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TT1과 TT2는 같은 시기에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상에 큰 차이를 보여, 시간의 흐름으로 재번역 현상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번역 또는 재번역을 둘러싼 맥락과 조건이 번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딘(Deane 2011)은 『보바리 부인』(*Madame Bovary*)과 『마의 늪』(*La Mare au diable*)이 영국에서 재번역된 사례를 대상으로 과연 재번역된 텍스트가 이전 번역에 비해 언어적·문화적으로 ST에 가까운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재번역이 최초의 번역보다 언어적·문화적 측면에서 오히려 ST에서 멀어졌음이 밝혀져, 재번역 가설이 언제나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국내의 경우 한미애와 조의연(Han and Cho 2014)이 『순교자』(*The Martyred*)의 재번역본(TT2, TT3)이 과연 최초 번역(TT1)보다 ST에 가까워졌는지 재번역 가설을 검증했는데, 분석 결과 TT2는 TT1보다 ST에 가깝지 않았으며, TT3은 재번역이라기보다 TT2를 수정한 것에 가까웠으나 TT2보다는 ST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도 재번역 가설이 모든 재번역 현상을 아우르거나 재번역의 현상을 설명하는 보편소 또는 법칙이 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56). 이처럼 재번역 가설과 결여 패러다임이 재번역 현상을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접근법은 무엇이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결여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규범적 접근법과 이데올로기적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이러한 대안에는 한계점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3. 결여 패러다임의 대안과 그 한계

3.1 규범적 접근법

결여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접근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규범적 접근법이다. 재번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시대마다 해당 문화에서 규범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번역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문화·번역 규범이 달라지고, 언어·시학·번역 행위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번역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규범적 접근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 번역이 구식이 되고, 목표문화의 현재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재번역이 이루어진다고 본다(Brownlie 2006: 150).

번역은 의도적인 행위이며, 모든 의도적인 행위는 사회적인 규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자기반성적 모니터링(reflexive self-monitoring)”을 포함한다(Giddens 1979: 55). 따라서 번역자는 자신의 결정이 언어 사용, 고전 문학, 번역 전통, 번역 의뢰인 등 목표문화의 규범 또는 가치에 따르고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 중 재번역의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언어 규범이다. 김도훈 외(2014: 3-6)는 펄 벅(Pearl Buck)의 『대지』(*The Good Earth*)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한국어의 언어 규범이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재번역되었는지 국내에서 출간된 19개의 번역본을 분석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맞춤법 변화에 따른 재번역 1

[ST] "You see [...] how fat they are, these southerners, and how pale and oily are their skins. They eat pork every day, doubtless." (96)

[TT1] 「남방사람들이 얼마나 살찐는가 보아라. 모다 살결이 희고 기름기가 [...] 저육을 먹는 모양이다.」 (115)

[TT19] “남쪽 사람들은 참 모두 뚱뚱해요. 살갗은 어찌 그리 희고 기름기가 돼지고기를 먹는 모양이에요.” (120)

방언을 표준어로 순화한 재번역 1

[ST] Then O-lan crept out and she took a great iron knife she had in the

kitchen [...] she served its life. (72)

[TT1] 그는 정지칼을 들고가서 소의 경동맥을 끊어서 죽였다. (86)

[TT19] 오란은 부엌에서 커다란 식칼을 들고 나왔다. (91)

한자어를 표준어로 순화한 재번역 1

[ST] As for the other jewels, he pondered this way and that, and at last he decided he would go to the great house and see if there were more land to buy. (150)

[TT3] 다른 보석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궁리한 끝에, 왕 룡은 황부자집에 가서 아직도 팔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해 보기로 결정하였다. (120)

[TT13] 한편 보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리저리 궁리해 본 다음에 그는 마침내 황씨 대 큰 집으로 가서 살 땅이 더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작정했다. (152)

[TT19] 다른 보석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궁리한 끝에 왕룡은 황대인 집에 가서 아직도 팔 땅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181)

맞춤법이 변화하고 표준어 규정이 새롭게 바뀌면서, 초기 번역의 표현(히고, 정지칼, 타진 등)이 현대적인 언어로 재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어문 규정의 변화와 확립이 재번역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언어 규범의 변화는 출판사가 재번역을 마케팅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구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언어로 탈바꿈’했음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번역본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가 재번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작품보다 저작권이 만료된 고전 문학작품을 재번역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기본적으로 고전은 어느 정도 독자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적 판매가 저조할 위험부담이 적다. 심지어 재번역보다 비용을 더욱 절감하기 위해 기존 번역을 약간 수정(revision)해서 출간하기도 한다. 이처럼 출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재번역은 판매 증진을 위해 가독성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3.2 이데올로기적 접근법

결여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또 다른 접근법은 이데올로기적 접근법이다. 시대마다 목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데올로기적 접근법을 주장한 대표적인 번역학자로 베누티(Venuti 2004)를 들 수 있다. 베누티는 재번역이 기존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했다(26). 17세 기 초, 『킹 제임스 성경』은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이 번역한 『틴데일 성경』, 리처드 태버너(Richard Taverner)가 번역한 『태버너 성경』 등 기존 개신교 성경의 권위를 이어받아 재번역하면서 성공회의 권위를 세우는데 일조했다. 고전의 지위를 누리는 텍스트인 기존 성경의 해석을 이어받아 재번역함으로써 새로운 종교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종교개혁 이전에 틴데일 성경은 가톨릭의 불가타성서의 해석에서 벗어난 이단으로 배척되었다는 사실이다.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부침(浮沈)에 따라 번역본의 지위와 권위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재번역은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독일의 소설가 토마스 만(Thomas Mann)의 소설은 헬렌 T. 로우-포터(Helen T. Lowe-Porter)가 1920년대에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하면서 영미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헬렌 T. 로우-포터는 20세기 초 영미권의 문화적 상황을 감안해 일반 독자에게 적합한 번역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독일문학을 전공한 번역자인 데이비드 루크(David Luke)는 독일문학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권위에 기대어 헬렌 T. 로우-포터의 번역의 언어적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수정해서 새로운 번역본을 출간했다. 데이비드 루크의 재번역은 당시 독일 문학계에서 지배적이었던 토마스 만의 작품에 대한 해석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었다. 데이비드 루크의 번역은 최대한 독일어 원작에 가까우며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Independent 2005.12.9.). 그러나 대중은 1990년대 존 우즈(John Woods)가 현대적 언어로 재번역한 버전을 선택했다. 가독성을 중시하는 출판사의 상업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복하고자 했던 데이비드 루크의 및 독일문학계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재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1968년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 당시 퀘벡의 민족주의 작가, 시인, 사전 편찬자 등은 퀘벡식 프랑스어(Quebecois French)를 공용어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했고, 셰익스피어(Shakespeare), 스트린드베리(Strindberg), 체홉(Chekhov), 브레히트(Brecht) 등의 고전 희곡을 퀘벡식 프랑스어로 재번역했다. 이는 북미 영어와 파리식 프랑스어라는 지배적인 언어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퀘벡식 프랑스어에 문화적 권위를 부여하고자 의도된 것이었다(Venuti 2004: 31). 당시 퀘벡주 내부에서는 언어적·문화적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퀘벡식 프랑스어를 바탕으로 단일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재번역이 활용되었던 것이다.

목표문화의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특정 작가의 특정 텍스트가 선정되어 재번역되면서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작품이 갑자기 주목을 받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소설가 그라치아 델레다(Grazia Deledda)의 작품이 그러한 예다. 그라치아 델레다는 192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나, 그 당시 그녀의 작품은 지역주의나 가정적인 삶을 표상하는 것으로만 여겨졌고, 영어로 번역된 작품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 페미니스트 번역자들은 델레다의 작품에 등장하는 강렬한 여성 캐릭터에 매력을 느꼈고, 델레다의 작품들이 영어로 대거 번역 및 재번역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에 기반한 재번역이 그간 소외되었던 여성작가를 재발견해낸 것이다(27).

종교는 기존 교리의 해석과 비슷하게 성경을 재번역해 권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도 하고, 학계는 당시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에 따라 정전을 재번역함으로써 기존의 해석을 전복하고 새로운 정전으로서의 권위를 얻고자 하기도 한다. 또,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번역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재번역 현상을 연구할 때 단순히 언어적 요소에 중점을 둔 텍스트 분석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번역을 둘러싼 문화적·역사적·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번역은 다른 문화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언어적·문화적·종교적·정치적·상업적·교육적 가치를 창조한다. 다른 문화적 행위와 차이점이 있다면, 번역은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로 된 텍스트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텍스트의 가치는 자국의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 축소되거나 수정될 수 밖에 없다. (25, 본인의 번역)

재번역은 목표문화의 가치와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원작을 읽어내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이러한 가치와 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번역을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행위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재번역은 역사적인 순간에 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내고, 이러한 가치에 따라 원작과 문화가 새롭게 정의되기 때문이다(36).

3.3 규범적·이데올로기적 접근법의 한계

규범적·이데올로기적 접근법으로 재번역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규범적·이데올로기적 접근법은 전반적인 사회적 패턴만을 강조하므로, 번역을 둘러싼 복잡하고 미시적인 상황을 간과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Brownlie 2006: 155). 규범적·이데올로기적 접근법은 당시 지배적인 사회 세력(social forces)에 의해 번역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세력은 계층적이고 결정적이라고 가정한다. 물론 언어와 사회를 둘러싼 세력 간에는 늘 우위를 차지하려는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세력이 늘 계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후기구조주의에서는 사회 세력이 계층적인 관계가 아닌, 나무뿌리와 같이 서로 얽히고설킨 다층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상호텍스트적 대화론(intertextual dialogism)은 모든 텍스트가 텍스트적 표면에서 교차점을 형성한다고 본다. . . . 넓게 보아 상호텍스트적 대화론은 텍스트가 위치하는 의사소통적 발화의 매트릭스와 문화의 모든 담화적 실천이 만들어내는 무한하고 열린 가능성을 뜻한다. (Stam 2000: 64, 본인의 번역)

이와 같은 대화론은 영향력의 크기가 다른 다양한 사회 세력이 서로 바뀌거나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의 거대한 지배적 세력에만 중점을 두지 않을 때 복잡하고 세부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재번역 역시 당시 지배적인 규범이나 이데올로기 등 단일한 사회 세력의 영향만으로 이루어진다고보다는 재번역을 둘러싼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맥락과 상황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지배적인 규범이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번역자 개인의 선택에 의

해 재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 예다. 지배적인 규범이나 이데올로기를 채택할 수도 있으나, 번역자가 이를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규범적·이데올로기적 접근법에 의하면 한 시대에는 당시 지배적인 규범이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번역이 한 종류만 존재해야 하지만,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번역본이 출간된 예는 규범적·이데올로기적 접근법이 늘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

4. 해석학적 접근법에 기반한 다양성 패러다임 제안

결여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규범적·이데올로기적 접근법도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번역의 주요 대상이 되는 문학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여 패러다임은 “강력한 원본의 개념”(Bassnett 2006: 173)에 기반한다. 즉, 원작이라는 텍스트는 절대적인 권위와 고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번역이 지향해야 할 ‘정답’인데 반해, 번역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원작에는 완벽하게 가까워질 수 없는,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텍스트라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 재번역의 결여 패러다임은 아무리 훌륭한 번역도 원작이 갖는 권위와 진실에는 미치지 못하며, 원작에 비해 열등한 글쓰기라는 편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여 패러다임은 19세기 초반까지의 문학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세기 초반까지 문학에서는 텍스트의 의미를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작품이 지향하는 바가 진실(truth)이라고 믿었다. 문학은 곧 진실의 모방(mimesis)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이었던 이 시기에는 문학작품을 비평함에 있어 특정 장르의 문학작품이 해당 장르의 규칙을 잘 따랐는지 여부가 중요했다(Culler 2010: 905). 즉, 당시에는 문학이 지향하는 절대적인 목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학작품이 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비평에서 관건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접어들면서 서구에서는 문학의 패러다임이 모방(mimesis)에서 표현(expression)으로 전환되었다(Culler 2010: 905). 문학이 진실

의 모방이며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적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문학은 하나의 표현이며 텍스트의 의미는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개념으로 문학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다. 데리다(Derrida 1992: 51)는 문학텍스트가 닫힌 공간, 즉 번역이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진실’의 공간이 아니라, ‘반복성(iterability)’의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문학텍스트는 그 핵심에 아무리 반복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 되면서 새로운 맥락과 시간에 따라 텍스트가 표현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문학이 기본적으로 해석적(interpretive)이며, 따라서 문학비평은 텍스트의 ‘읽기(reading)’에 다름 아니라고 말한다(52). 즉, 문학비평가는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해석하고 읽어낸 것을 독자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번역은 비평가 마찬가지로 일종의 텍스트 ‘읽기’이다. 비평가가 작품에서 읽어낸 바를 독자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번역자도 자신이 읽어낸 것을 목표언어로 옮기는 것이다. 문학작품이 근본적으로 해석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번역은 작품의 ‘메시지’ 해독이 점차 고도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작품이 ‘표현’하는 바를 재차 읽어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브리셋(Brisset 2004: 44; Massardier-Kenney 2015: 76에서 재인용)은 번역의 “불완전성(inachèvement)”은 모든 표상(representation)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번역 또는 재번역에 대해 평가할 때 완벽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자주 언급하지만, 사실 번역은 표상의 일종이며, 모든 문화적 표상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번역에 있어 “A 언어에서 B 언어로 모든 것을 다 이동시킬 수 없고, 개념적 내용, 숨은 뜻의 일치, 시청각적 연상의 완벽한 대칭을 이룰 수 있는 정확한 그물망은 없다”(Derrida and Bass 1982: 23)고 밝혔다. 모든 표상은 불완전하고 번역도 그러한 표상의 일종인데, 유독 번역에 있어서만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은 번역의 복잡성을 축소시키거나 무시하는 데서 비롯”(윤선경 2015: 141)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본의 한도 내에서 작업해야 하는 제약을 고려해보면, 번역은 비상한 종류의 문학적 기술을 필요로 하며, 그 기술은 처음에 그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비해 절대로 열등한 것이 아니다(Bassnett 2006: 174). 특히 고전 번역은 고대와 현대 문명 사이의 긴 시간의 간극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번역가들에게 창조적인 상상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윤선경 2015: 143).

“텍스트는 단 하나의 신학적 의미(저자-신의 ‘메시지’)를 풀어주는 단어들이 아니라그 어느 것도 원본이 아니고 서로 섞이며 충돌하는 다차원적인 공간”(Barthes 1977: 146)이다. 문학텍스트는 시대와 맥락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비평가가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독자에게 전달하듯, 번역자도 당시의 맥락에 따른 자신의 해석을 번역본으로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적인 접근법은 원작이 (다다르고자 하나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정답’이며, 번역은 아무리 노력해도 원작에 비해 결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열등한 텍스트’라는 결여 패러다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윤선경(2015)은 창조적인 시 번역을 제안하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 텍스트가 많은 해석이 있고 다양한 독자가 그것을 다르게 읽는 것처럼, 그 텍스트는 많은 번역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번역가는 다양하게 번역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은 번역가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최종적인 번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142)

재번역은 기존 번역의 결여와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재번역은 기존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번역자의 새로운 해석과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여와 실패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다양한 번역의 공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번역이 이루어진 것은 기존 번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역이 성공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재번역은 작품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목표 문화와 언어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Massardier-Kenney 2015: 78).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에 따르면 번역가는 원본의 “재창조를 통해 작품에 갇힌 순수 언어를 해방”시켜야 하고, 번역은 원본의 “사후의 삶(afterlife)”이며, “원본의 생명은 번역 속에서 늘 다시 새로워지고 가장 풍성한 꽃을 피워낸다(Benjamin 1992: 73).” 번역은 특정 작품의 영원한 삶과 언어의 영속적 부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앤드류 벤야민(Andrew Benjamin)은 ‘정보(information)’와 ‘이야기(story)’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보’는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반면 ‘이야기’

는 스스로를 소진하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힘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Benjamin 1989: 106). ‘정보’는 발생한 뒤 소멸하여 살아남지 못하고, 따라서 사후의 삶도 없다. 그러나 ‘이야기’는 최종적이고 고정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으며, 따라서 사후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벤야민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번역은 문학작품의 지위를 단순한 ‘정보’로 환원시키며, 그렇게 되면 ‘이야기’라는 작품의 본질적 가치(essential quality)를 제대로 번역해낼 수 없다고 밝힌다(88). 문학작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반복될 수 있다(Massardier-Kenney 2015: 79).

- 언어내적 반복(intralingual reiteration): 논평, 해설, 연구논문, 분석, 서평 등
- 언어간 반복(interlingual reiteration): 번역, 재번역
- 기호간 반복(intersemiotic reiteration): 연극, 춤, 영화, 음악 등의 형태로 각색

문학작품이 시간의 흐름을 거치고도 살아남아 고전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문학, 문화, 경제, 종교, 정치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다. 그러나 한 작품이 고전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학교수, 비평가, 역사학자, 연구자 등 해당 문화 내외에서 설득력을 가지는 독자층이 지속적으로 그 작품을 읽고 언급해서 작품을 접해보지 않은 독자들이 작품을 읽도록 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이 고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반복되어 독자들에게 읽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감상 되어야 하나의 작품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그 작품을 읽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번역이 문학작품의 사후의 삶을 담당한다면, 재번역은 번역의 사후의 삶을 담당한다(Benjamin 1992: 73). 재번역은 반복을 통해 작품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문학작품을 고전의 반열에 올리는 긍정적인 작업인 것이다.

하이데거는 재번역 시 기존 번역을 인정하고, 기존 번역과 대화를 함으로써 문학텍스트를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Venuti 1998: 68). 기존 번역의 결함을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는 한, 번역과 재번역이 문학작품이 고전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재번역이 이

전 번역의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전으로서의 원작의 생명을 지속시키고 번역자의 해석 및 선택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상생이 가능하다. 벤야민은 어떤 텍스트가 번역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텍스트가 번역될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Benjamin 1992: 73). 번역을 통해 문학텍스트는 원천문화와 원작의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어 확장된다(Massardier-Kenney 2015: 81). 그렇다면 재번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기존 번역을 통해 원작의 텍스트성이 목표문화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번역은 기존 번역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작이 고전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셰익스피어 전공자를 제외하고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것은 수많은 연구논문, 논평, 연극, 만화, 춤, 오페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접하는 한편, 번역과 재번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원천문화와 목표문화에서 그 생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Massardier-Kenney 2015: 81).

5. 나가며

본 연구에서 제기했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재번역을 둘러싼 결여 패러다임과 재번역 가설은 무엇이며, 결여-향상 패러다임의 한계는 무엇인가였다. 결여 패러다임은 기존 번역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재번역을 통해 이러한 결함이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는 최초의 번역이 자국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T에 가깝게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재번역 가설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재번역이 반드시 이전 번역보다 ST에 가깝거나 더 정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져, 재번역 가설과 결여-향상 패러다임이 모든 경우에 유효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결여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규범적·이데올로기적 접근법은 무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였다. 규범적·이데올로기적 접근법은 재번역의 이유를 각각 규범의 변화와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설명한다. 즉, 당시 지배적인 언어·문학·번역 규범과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재번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규범과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동시대에 서로 다른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당시 지배적인 사회 세력 하나만으로 번역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배적인 규범이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결정을 번역자가 선택할 수도 있고, 보편적인 사회 세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역적인 맥락과 상황에 의해 번역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해석학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 패러다임이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였다. 해석학적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텍스트가 해석적이며, 모든 번역은 번역자의 해석이라고 본다(Rutherford 2006: 73). 원작이 “체계적인 해독의 대상, 고정된 단단한 대상”(Bassnett 1998: 65)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맥락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누가 번역하는지, 어느 시대에 번역된 것인지, 그 당시 지배적인 개념적 틀이나 제도적 목표가 무엇인지, 번역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어떠한지, 상호텍스트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의 변화가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재해석이 이루어지면서 재번역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학적 접근법은 번역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때, 다양한 번역, 상생의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번역의 결함을 재번역으로 보완하겠다는 결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성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물론 본고에서 제안하는 다양성 패러다임은 저작권이 소멸한 텍스트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과거에 수준 이하의 번역물이 범람했고, 저작권이 유효한 작품의 경우 한 종류의 번역본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번역이 곧 개선이라는 결여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번역학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대규모 텍스트 단위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번역 그리고 재번역이 상당한 창의력과 인지적인 복잡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목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Massardier-Kenney 2015: 81-2).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성 패러다임은 결여 패러다임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창조적인 글쓰기로서의 번역을 드러내는 데 일조할 수 있다. 해석학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 패러다임에서 번역자는 열린 가능성을 내포한 문학 텍스트에 대해 해석자로

서 원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또 하나의 번역 ‘작품’을 창조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여 패러다임에서 다양성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재번역, 더 나아가 번역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번역자의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도훈, 심경진 (2014) 「필 벽의 『대지』 재번역 양상에 대한 소고」, 『통번역학 연구』 18(2): 1-14.
- 윤선경 (2015) 「시와 번역」, 『현대영미시연구』 21(1): 137-55.
- 임순정 (2010) 「고전 문학 작품의 재번역 양상」, 『번역학연구』 11(2): 127-49.
- Barthes, Roland (1977) ‘The Death of the Author’, *Image, Music and Text*, Trans. Stephen Heath, London: Fontana, 142-48.
- Bassnett, Susan (1998) ‘Transplanting the seed: Poetry and translation’, in Susan Bassnett and André Lefevere (eds.) *Constructing cultures: Essays on literary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57-75.
- _____ (2006) ‘Writing and Translating’, in Susan Bassnett and Peter Bush (eds.) *The Translator as Writer*,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173-83.
- Benjamin, Andrew (1989) ‘Walter Benjamin and The Task of the Translator’, *Translation and the Nature of Philosoph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enjamin, Walter (1992) ‘The Task of the Translator’, in Rainer Schulte and John Biguenet (eds.)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Chicago: U of Chicago P, 71-82.
- Bensimon, Paul (1990) ‘Presentation’, *Palimpsestes* 13(4), ix-xiii.
- Berman, Antoine (1990) ‘La Retraduction comme espace de traduction’, *Palimpsestes* 13(4): 1-7.
- Brisset, Annie (2004) ‘Retraduire ou le corps changeant de la connaissance.

- Sur l'historicite de la traduction', *Palimpsestes* 15, 39-67.
- Brownlie, Siobahn (2006) 'Narrative Theory and Retranslation Theory',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7(2): 145-70.
- Chesterman, Andrew (2000) 'A causal model for translation studies', in Mitchell W.J.T. (ed.) *Intercultural Faultlines*, Manchester: St Jerome, 15-28.
- Culler, Jonathan (2010) 'Introduction: Critical Paradigms', *PMLA* 125(4): 905-15.
- Deane, Sharon Louise (2011) *Confronting the retranslation hypothesis: Flaubert and Sand in the British literary system*, PhD. University of Edinburgh, <<https://www.era.lib.ed.ac.uk/bitstream/handle/1842/5494/Deane2011.pdf>>
- Derrida, Jacques and Alan Bass (1982) *Position*, Chicago: U of Chicago P.
- Derrida, Jacques (1992) 'This Strange Institution Called Literature', in Derek Attridge (eds.), *Acts of Litera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3-75.
- Giddens, Anthony (1979)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Action, Structure, and Contradiction in Social Analysis*, Berkeley: U of California P.
- Han, Miae and Euiyon Cho (2014) 'Retranslation Hypotheses and Three Korean Translations of The Martyred',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5(4): 29-59.
- Massardier-Kenney, Françoise (2015) 'Toward a Rethinking of Retranslation', *Translation Review* 92(1): 73-85.
- Paloposki, Outi and Kaisa Koskinen (2004) 'A thousand and one translations: Revisiting retranslation', *BENJAMINS TRANSLATION LIBRARY* 50, 27-38.
- _____ (2010) 'Reprocessing texts. The fine line between retranslating and revising',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1(1): 29-49.
- Rodriguez, Liliane (1990) 'Sous le signe de Mercure, la retraduction', *Palimpsestes* 4: 63-80.
- Rutherford, John (2006) 'Translating Fun: Don Quixote', *The Translator as Writer*: 71-83.
- Stam, Robert (2000) 'Beyond fidelity: the dialogics of adaptation', in Naremore, J. (ed.) *Film adaptation*, London: The Athlone Press, 54-76.

- Susam-Sarajeva, Şebnem (2006) *Theories on the move: translation's role in the travels of literary theories*, No. 27. Rodopi.
- Vanderschelden, Isabelle (2000) 'Why retranslate the French classics? The impact of retranslation on quality', in Myriam Salama-Carr (eds.) *On Translating French Literature and Film II*, Amsterdam & Atlanta: Rudopi, 1-18.
-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Taylor & Francis US.
- _____ (2004) 'Retranslations: The creation of value', *Bucknell Review* 47(1): 25-38.

[전자자료]

- Independent (2005.12.9.) 'David Luke - Oxford German don and translator of Goethe, Kleist, Thomas Mann and the Brothers Grimm', <http://www.independent.co.uk/news/obituaries/david-luke-518691.html>

[Abstract]

**Rethinking Retranslation:
From Paradigm of Lack Towards Paradigm of Multiplicity**

Yu, Han-Na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retranslation phenomenon and questioning the notions of lack behind it. This paradigm of lack, which assumes that retranslation stems from a weakness, deficiency, and inadequacy in previous translations or in the source text, is based on the Retranslation Hypothesis. One of the alternatives of paradigm of lack is norms/ideology approach, which implies conditioning by large social forces. Although it is a powerful approach, it could neglect specific contextual circumstances and complexities due to the emphasis on dominant broad social patterns. The study of retranslation must be open to the possibility of more than one translation being undertaken during one time period. Literary text is open-ended and thus lend themselves to multiple interpretations. Fundamentally, every translation can be considered to be an interpretation and every translator an interpreter. This interpretative approach shows creativity and cognitive complexity that impel translation and retranslation, and allows and respects multiple translations. Unless we rethink the posture of judging the translation or retranslation and finding its defects and deficiencies, we will continue to be deaf to the decisive role of retranslations in actualizing the afterlife of literary texts. Thus, moving from the paradigm of lack towards the paradigm of multiplicity is a must in rethinking retranslation.

▶ Key Words: retranslation, retranslation hypothesis, paradigm of lack, paradigm of multiplicity

유한내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mbrosia14@gmail.com

관심분야: 번역비평, 번역철학, 번역자의 역할과 지위

논문투고일: 2017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7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6일